

부모의 권위에 대한 아동의 지각 연구*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al Authority

김 경 희**

Kim, Kyung Hi

ABSTRACT

This research examined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al authority within three different types of rules: moral, social-conventional, and personal issue. Specifically, two major aspects of parental authority—legitimacy and obedience—were explore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20 children from an elementary school in Kwangju. There were 40 subjects (20 males and 20 females) in each of three age groups: 7-, 9-, and 11-year-olds. The subjects were administered an interview individually. Based on Tisak (1986) open-ended questions concerning three family rules (moral rule, social-conventional rule, personal issue) were administered. Responses to the assessment questions were coded as positive or negative. Responses to the judgment conception questions were coded into 7 categories: Other's Welfare, Social Coordination, Personal choice, Deservedness of Punishment for Wrongdoing, Existence of Authority, Conflicting Personal Interest and Authority, and Personal Development. Statistical analysis of obtained data was by percentage and χ^2 test using log linear procedur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re was a significant main effect of type of rule on the children's assessment regarding legitimacy and obedience of parental authority. The children (average 96%) stated that it was all right for parents to make rules prohibiting an act when it pertained to moral and social conventions. However, the majority of the children (average 40%) stated that it was not right for parents to regulate personal issues. (2) There was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type of rule and age. (3) There was a significant main effect of rules on the children's judgment conception of parental authority. (4) There was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rules and ages on children's judgment conception of parental authority.

* 본 연구는 1986년 12월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임.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부모는 자녀가 사회에서 유능한 성인이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교사이다. 그러므로 부모는 아동의 행동을 단속하고 지도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권위를 내세우고, 아동의 행동을 지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정의 규칙을 세우고 자녀가 규칙에 따라 행동하기를 요구한다. 이러한 부모의 권위를 자녀가 존중하고 규칙에 따라 복종할 때, 그 가정의 전통과 가치관을 이어가고 지켜나갈 수 있다. Winch (1971)에 의하면 부모의 권위는 자녀의 관점에서 약해질 수 없는 일방적인 것이며 자녀가 복종해야만 하는 규칙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또한 Bigner (1977)는 부모가 명령하는 규칙을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는 몸집이 크고 어른이기 때문에 언제나 일방적으로 “하라”는 지시를 주는 것이고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화하고 학습시켜야 하기 때문에 교육시키는 것이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권위의 규칙명령에 대한 아동의 관점과 부모의 관점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White (1964)는 권위가 정한 규칙이 아동의 마음에 정당하다는 원칙이 세워져야 부모를 존경하고 규칙에 따라 복종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村田孝次 (1986)는 자녀는 부모에게 존경을 느끼지만 동시에 저항을 느끼며, 또래와의 관계가 발달함에 따라 부모권위에 대한 판단능력이 생긴다고 한다.

이상의 견해들을 종합하여보면, 부모 - 자녀관계에서 부모의 권위는 자녀의 행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이며 또한 권위에 대한 자녀의 지각은 사회성이 발달함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의 연구들은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부모와 교사등 아동의 사회행동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용한 훈육방법의 효과성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부모편에서 자녀를 연구한 것이다. 자녀에 대한 연구는 그들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여 자녀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의미에서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규칙을 세우고 자녀에게 복종하기를 요구하는 부모권위에 대해 아동이 어떻게 지각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이러한 방면의 연구가 거의 없었으므로 본 연구는 이와같은 필요성에 부응하여 부모권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연구하여 가정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및 부모 - 자녀관계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권위에 대한 아동의 평가

- 1) 부모의 권위에 대한 아동의 평가는 규칙의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2) 부모의 권위에 대한 아동의 평가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부모의 권위에 대한 아동의 판단개념

1) 부모의 권위에 대한 아동의 판단개념은 규칙의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부모의 권위에 대한 아동의 판단개념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1) 권위 (Authority)

Damon(1977)은 ‘인간사이의 서로 다른 사회의 힘에 의해 형성된 사회관계이며, 사회의 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복종이라 불리우는 사회관계’라고 정의하였으며 Tisak(1986)은 ‘아동의 행동을 구속하는 규칙을 정하여 명령하는 힘’이라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권위를 Tisak의 정의에 기초를 두고 ‘아동의 행동을 제한하고 구속하는 규칙을 정하여 명령하는 힘’이라 정의한다.

2) 규칙 (Rule)

이영석(1982)은 ‘개인 상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규정하는 것’이 규칙이라고 하였으며 Tisak(1986)은 ‘아동의 행동을 구속하기 위하여 부모가 정한 일’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규칙을 Tisak의 정의에 기초를 두고 ‘부모가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동의 행동을 구속하는 일’이라고 정의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위

가족간의 지위와 관련하여 부모의 권위를 Furth(1978)는 부모의 명령에 대한 아동의 복종을 뜻하는 것이며, 부모가 정한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아동의 역할에 관한 문제라고 하였으며 Youniss(1978)는 아동이 깨닫지 못하는 사회의 가치를 아동에게 가르치는 양육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였다. 이는 자녀가 잘 모르는 사회체제에서 사회체제를 잘 알고 있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며, 사회체제를 구성하는 규칙과 가치에 대한 지식에 있어 부모와 자녀는 기본적인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부모를 권위있는 위치에 있게 한다. 즉 상황에 적합한 행동양식을 알고 있는 부모의 지도에 따라 행동이 금지될 때 자녀는 사회의 질서있는 행동양식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Piaget(1970)에 의하면 영아기에서부터 아동은 사회생활의 규칙을 따르게 되고 부모는 아동에게 규칙을 제공한다고 한다. 부모는 양육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아동에게 식사하는 법, 옷 입는 법, ... 등에 속하는 습관을 간접적으로 배우게 하고 또 직접 언어를 사용하여 지도하며, 아동이 4세에 이르게 되면 부모의 역할이 지니는 권위에 따르고, 권위의 규칙명령이 몸에 익숙하게 되고 아동이 복종해야하는 사회의 질서를 이해하게 된다고 한다. 즉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

해 부모의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사회의 규칙과 가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의 위치를 깨달으며 사회의 질서에 따른 행동방식을 터득하게 된다.

2. 규칙에 대한 아동의 지각

규칙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아동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규칙에 관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들은 타인의 행복이나 권리를 침해하는 도덕규칙과 사회체제내의 규칙이며 사회구성원들간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사회인습의 규칙을 구분하여 지각한다고 보고하였다.(Nucci, 1980; Nucci & Turiel, 1978; Tisak & Turiel, 1984; Turiel, 1978; Weston & Turiel, 1980) 규칙에 대한 개념은 도덕 규칙에서 공평성, 타인의 복지, 권위의 존재등의 개념이 많이 나타났고 사회인습의 규칙에서 사회의 통합, 별의 당연, 권위와의 갈등등의 개념이 많이 나타났다.(March & Schweder, 1978; Nucci, 1977; Smetana, 1981; Turiel, 1975, 1977, 1979, 1982) 6세에서 10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Tisak과 Ford(1983), Tisak과 Turiel(1984), Turiel(1978) 등의 결과에 의하면 도덕규칙의 위반은 타인의 행복을 침해하기 때문에 나쁜행동이며 규칙을 위반하고 싶은 잠재된 욕망이 있어도 규칙에 복종하여 갈등을 나타내지 않으나, 사회인습의 규칙은 위반하여도 덜 나쁜행동이고 규칙보다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해도 된다고 반응하여 권위자의 명령과 자신의 잠재된 욕망과 갈등을 나타냈다고 한다. 6.8세의 아동보다

10세의 아동에게서 갈등이 더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어린아동은 권위자가 정한 규칙에 절대 복종하지만 연령이 많은 아동들은 또래와의 사회적 접촉이 빈번해지고 사회성이 발달함으로써 권위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한다고 볼 수 있다. Nucci(1981)는 8세에서 20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도덕규칙과 사회인습의 규칙, 개인의 문제에 속한 규칙등의 개념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모든대상아동들이 도덕규칙의 위반이 가장 나쁜행동이며, 다음으로 사회인습의 규칙위반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문제에 속한 규칙에 대해서는 연령이 많을 수록 규칙을 위반하여도 나쁜행동이 아니며, 규칙으로 정해질 수 없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규칙에 대한 개념에서 도덕규칙은 타인의 복지, 사회인습의 규칙은 사회의 통합,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선택개념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즉, 규칙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행동의 결과가 남에게 해를 주고 남의 행복을 침해하는 도덕규칙과 가족구성원들이나 사회집단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사회인습의 규칙, 행동의 결과가 자신의 행동영역에 해를 주는 개인의 문제에 관한 규칙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의 잠재된 욕망이 규칙과 부딪혔을때 도덕규칙에 대해서는 갈등을 나타내지 않으나 사회인습의 규칙에 대해서는 갈등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부모의 권위에 대한 아동의 지각

부모의 권위는 두영역으로 분류된다. 하나

는 부모의 권위가 지니는 힘에 대한 정당성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의 권위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아동의 복종이다. Youniss(1976)는 6세에서부터 13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복종에 대한 지각을 조사하였다. 연령이 적은 아동일수록 권위의 명령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것이 복종이라고 지각하였으며 연령이 많은 아동들은 권위자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주는 행동뿐만 아니라 명령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청소나 집안일을 하는 것도 복종행동이라고 지각하였다. Damon(1977, 1980)과 Tisak(1986)은 권위의 정당성과 복종에 대해 연구하였다. Damon(1977)은 4세부터 10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자기방을 정리하지 않으면 나가볼 수 없는 규칙을 정한 부모의 권위에 대해 연령이 적은 아동들은 권위자에 대한 동일시, 권위자의 신체적인 특징 권위자가 전능의 힘을 갖고 있다는 존경등에 따라 권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으며, 복종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지각하였다. 연령이 많은 아동들은 권위자가 우수한 사람이며 특수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아동의 장래를 위해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기때문에 권위의 명령이 정당하다고 하였으며 권위자는 자신을 돌봐준 사람이므로 권위자의 명령에 따라 복종해야 한다고 하였다. Tisak(1986)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훈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을 만든 것이 가장 정당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친구선택의 규칙에 대해서는 연령이 많을 수록 정당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친구선택의 규칙을 포함하는 개인의 문제는 부모권위의 지배영역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권위에 대한 판단개념

은 규칙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훈치는 행동금지규칙에서는 공평성, 타인의 복지, 권위의 존재등의 개념이 많이 나타났고 식탁정리규칙에서는 사회의 통합, 자신의 장래, 권위와 갈등등의 개념이 많이 나타났으며 친구선택의 규칙에서는 개인의 선택개념이 많이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국민학교 1학년, 3학년, 5학년아동으로 광주시내 소재의 중류층에 속하는 J공립국민학교에서 학년별로 4학급을 인의로 선정하고 한 학급에서 10명씩 무선표집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을 만 7세에서 11세의 아동으로 선정한 이유는 권위에 대해 7세의 아동은 일방적인 존경을 나타내고 무조건 복종하지만 9세에 이르면 권위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지 않고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을 고려해서 복종한다고 한 Piaget(1965)의 이론에 의해 부모의 권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살펴보기에 가장 적절한 연령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대상아동의 연령별, 성별분포는 <표1>과 같다.

〈표 1〉 대상아동의 연령별 성별분포(명)

연령별	성 별		전 체
	남	녀	
7세 (1학년)	20	20	40
9세 (3학년)	20	20	40
11세 (5학년)	20	20	40
전 체	60	60	120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부모의 권위에 대한 아동의 평가와 판단개념을 조사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Tisak(1986)의 연구에서 도덕내용, 사회인습내용, 개인의 문제내용에 관한 규칙이야기와 개방형의 질문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본 연구의 도구에서 제시한 이야기는 부모가 아동의 행동을 금지하는 규칙에 관한 세가지 내용으로 첫째, 도덕내용의 규칙은 위반한 행동이 직접 개인의 권리나 복지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도덕에 속한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동을 금지하는 규칙이 도덕내용에 관한 이야기이다.

둘째, 사회인습내용의 규칙은 위반한 행동이 개인에게 해를 주기 보다는 사회집단의 분열을 야기시키므로 사회인습에 속한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 자기 방을 정리하지 않으면 나가 볼 수 없는 규칙이 사회인습내용에 관한 이야기이다.

셋째, 개인의 문제내용에 속하는 규칙은 위반한 행동이 권위의 지배영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에 속한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 학급에 있는 어떤 친구와 상호작용을

금지하는 규칙이 개인의 문제내용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상의 세가지 내용에 관한 규칙이야기에 따른 개방형의 질문은 부모권위의 정당성과 복종에 대한 아동의 평가와 판단개념을 나타내도록 제시되었다. 질문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반응하도록 아동에게 제시되었다.

첫째, 부모의 권위가 만든 규칙의 정당성(Legitimacy of Rule Making by Authority): 부모에게 자녀의 특별한 행동을 금지하는 규칙을 만드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한다. 예를들면 철수의 어머니께서 철수에게 남의 물건을 갖지 말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고 아동은 있다. 없다고 반응한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는 질문을 하고 아동은 자신의 판단개념을 밝힌다.

둘째, 부모의 권위가 만든 규칙에 따라 복종(Obligation to Follow Authority's Rule): 부모가 만든 행동금지 규칙에 따라 아동이 복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한다. 예를들면 철수가 남의 장난감을 가졌다면 이때 철수의 행동은 옳은 행동입니까? 나쁜 행동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아동은 옳다, 나쁘다로 반응한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는 질문을 하고 아동은 자신의 판단개념을 밝힌다.

셋째, 갈등상황에서 부모의 권위에 대한 평가(Evaluation of a Counterargument): 부모가 만든 규칙에 따라 복종해야 한다고 반응한 아동만 이 영역에서 평가된다. 이 영역의 평가목적은 부모의 명령과 아동의 잠재된 욕망사이의 갈등을 나타내는 상황을 제시하였

올때 아동이 권위에 복종한다고 반응한 경우 자신의 판단을 바꾸어 반응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예를들면 철수는 장난감이 몹시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장난감을 가졌읍니다. 이때 철수의 행동은 옳은 행동입니까? 나쁜 행동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아동은 옳다, 나쁘다로 반응한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는 질문을 하고 아동은 자신의 판단개념을 밝힌다.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질문지의 타당성 및 소요되는 시간, 아동이 질문의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는 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2일 동안, 본 연구자와 아동학을 전공하는 2명의 대학원생이 함께 면접을 실시하였다. 연령집단별로 8명씩 총 24명의 광주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거의 모든 아동들이 잘 이해하였으며 개별면접에 소요되는 시간은 15 - 20 분이였다.

2) 본 조사

본 조사는 4일간 본 연구자와 예비조사에 참여한 2명의 대학원생들이 함께 실시하였다.

1일 30명씩 (1학년이 10명), 국민학교의 지정된 교실에서 개별면접하였다.

4. 자료분석

1) 부모의 권위에 대한 아동의평가에 따른 자료분석

부모권위의 정당성 및 복종에 대한 아동의 평가는 각각 긍정·부정으로 부호화하였으며 갈등상황에 대한 반응은 앞의 질문에 복종한다고 답한 아동의 반응만을 긍정·부정으로 부호화하였다.

2) 아동의 판단개념에 관한 내용분석

① 분석대상

권위의 정당성 및 복종에 대한 판단의 의도 및 동기를 파악하기위하여 각 문항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분석대상이다.

② 분석기준

부모의 권위에 대한 아동의 판단개념은 Tisak (1986)의 연구에서 나타난 개념분류에 따라 문항별로 분석하였다.

각 개념의 판단기준과 사례는 <표2>와 같다.

<표 2> · Tisak의 부모권위에 대한 판단개념 및 본연구사례의 판단기준

개 념	정 의	사 례
공 평 성 (Appeal to Fairness)	개인들 사이의 권리를 주장한다.	없었음
평계의 처벌 (Punishment Evasion)	부정적 결과를 일으킬 때 다른 사람에게 책임전가 한다.	없었음

개 념	정 의	사 례
타인의 복지 (Other's Welfare)	행동의 결과가 타인의 행복을 파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빼앗으면 그 아이가 운다. • 도둑이다. • 훔치면 나쁜 사람이다.
사회의 통합 (Social Coordination)	사회집단의 부드러운 관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각자 자신의 기대체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가 힘들다. • 자기할 일은 자기가 해야 한다. • 방을 치우면 가족이 좋다.
개인의 선택 (Personal Choice)	개인의 결정문제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은 친구라면 놀아도 된다. • 엄마의 일이 아니다.
벌의 당연 (Deservedness of Punishment for Wrongdoing)	규칙을 위반했을때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말을 안들으면 혼난다.
권위의 존재 (Existence of Authority)	규칙이나 법의 출현, 권위자의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말이니까 들어야 한다.
권위와 갈등 (Conflicting Personal Interest and Authority)	자신의 욕망과 규칙의 방해사에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화영화가 보고 싶으니까 엄마말을 듣는다.
개인의 발달 (Personal Development)	개인의 성장을 증진시키는 행동을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장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③ 분석과정

본 연구자와 본 조사에 참여한 2명의 대학원생이 함께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 나타난 개념들을 문항별로 모두 서술하고 Tisak의 개념과 비교하였다. 전체문항수(935)에서 나타난 아동의 개념을 부호화하여 분석자간의 일치도를 본 결과 98%였다.

④ 통계방법

부모의 권위에 대한 아동의 평가 및 판단개념의 전반적인 경향은 빈도와 백분율로 처리하였다. 종속변인(정당성, 복종, 갈등, 판단

개념), 각각에 대한 독립변인(규칙의 내용, 연령)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알기 위하여 log linear Procedure를 사용한 χ^2 검증을 하였다.(Grizzle, Stamer & Koch, 1969)

IV. 연구결과

1. 부모의 권위에 대한 아동의 평가

규칙의 내용 및 연령에 따른 부모의 권위에 대한 아동의 평가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면 <표 3>과 같고,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를 log

linear 절차를 사용한 χ^2 검증결과를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첫째, 부모권위의 정당성에 대한 아동의 평

< 표 3 > 규칙의 내용 및 연령에 따른 부모권위의 평가빈도와 백분율

권 위	규 칙 연 령 비 도와 백분율	도 덕				사 회 인 습				개 인 의 문 제			
		7	9	11	평 균 (%)	7	9	11	평 균 (%)	7	9	11	평 균 (%)
정 당 성 *	N	40	39	38	97	39	39	38	96	29	27	8	53
	%	100	97	95		97	97	95		96	72	67	
복 종 *	N	40	40	40	100	39	39	37	95	39	35	16	74
	%	100	100	100		97	97	92		95	97	87	
갈 등 **	N	1	0	0	1	17	6	6	25	4	9	9	31
	%	3	0	0		44	15	16		25	10	26	

* 부모권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빈도와 백분율

** 부모권위와 자신의 욕망과 갈등을 나타낸 아동의 빈도와 백분율

< 표 4 > 부모의 권위에 대한 아동의 평가에 따른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

변 량 원	권 위	정 당 성	복 종	갈 등
주 효과	규칙 χ^2 (2)	55.56 ***	11.36 *	24.29 ***
	연령 χ^2 (2)	6.40	4.63	1.42
상 호 작 용 효 과	규칙 \times 연령 χ^2 (4)	2.62	5.54	32.71 ***

*** P < .001

* P < .01

가는 <표 4>에서와 같이 규칙의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표 3>에 의하면 거의 모든 아동들이 부모에게 흠치는 행동을 금지하는 규칙을 만들권리가 있다(97%)고 하였으나, 개인의 문제에 속하는 규칙을 만들 권리가 있다고한 아동은 53%에 불과하였다.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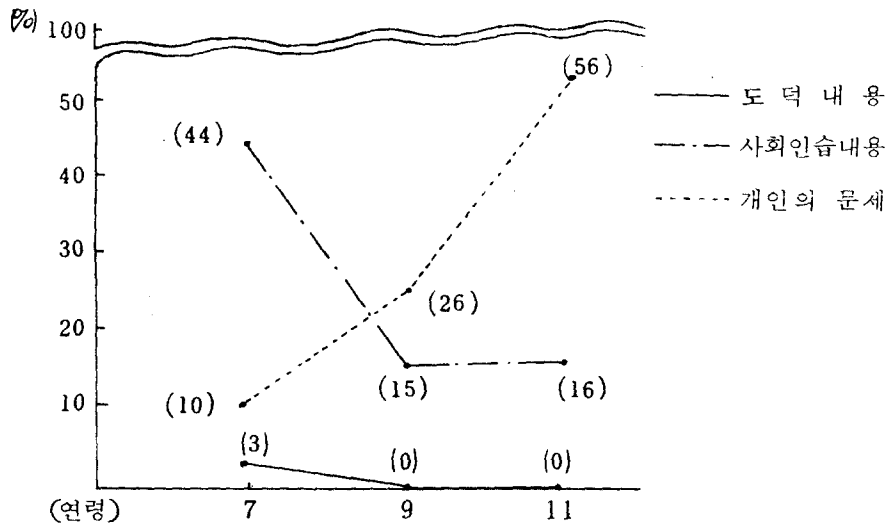
들은 부모에게 모든 규칙을 만들 권리가 있다고 평가하지 않으며, 특히 개인의 문제에 속하는 규칙을 만들 권리는 부모에게 없다고 평가한다. 이는 연령이 많을 수록 더 강하게 나타났다.

둘째, 부모권위의 복종에 대한 평가는 <표

4)에서와 같이 규칙의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 표 3 >에 의하면 도덕내용과 사회인습내용의 규칙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아동들이 복종해야 한다고 평가한 반면 개인의 문제에 관한 규칙에서는 26%의 아동들이 복종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부모권위의 복종에 대한 평가에 연령이 유의하진 않으나 < 표 3 >에 의하면 개인의 문제에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 수록 복종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즉 연령이 어린 아동들은 권위자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지만 연령이 많을 수록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함을 알 수 있다.

세째, 아동의 잠재된 욕망과 부모권위의 규칙명령과의 갈등은 < 표 4 >에서와 같이 규칙의 내용에 따라 유의하였으며 규칙의 내용과 연령과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하였다. < 표 3 >에 의하면 개인의 문제에서 가장 많이 갈등을 나타냈으며 도덕규칙에서는 거의 갈등을 나타내지 않았다. 규칙과 연령사이의 상호작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갈등상황에서 부모권위에 대한 평가와 규칙의 내용에 따른 연령별 상호작용효과

(그림 1)에 의하면 도덕내용에서는 연령간의 차이가 없었으나 사회인습내용과 개인의 문제에서는 연령간의 차이가 있었다. 즉 사회인습내용에서는 가장 어린연령에서만 갈등을 많이 나타내며 개인의 문제에서는 연령이 많아질 수록 더 많이 갈등을 나타낸다.

2. 부모의 권위에 대한 아동의 판단개념

규칙의 내용 및 연령에 따른 부모의 권위에 대한 아동의 판단개념을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하면 < 표 5 >와 같고 상호작용효과와 주효과를 log linear 절차를 사용한 χ^2 검증결과를 제시하면 < 표 6 >과 같다. < 표 6 >에 의하면 부모의 권위에 대한 아동의 판단개념은 규칙의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또한 규칙과 연령사이의 상호작용효과도 있

었다. 상호작용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 표 5 > 규칙의 내용과 연령에 따른 부모권위에 대한 아동의 판단개념빈도 및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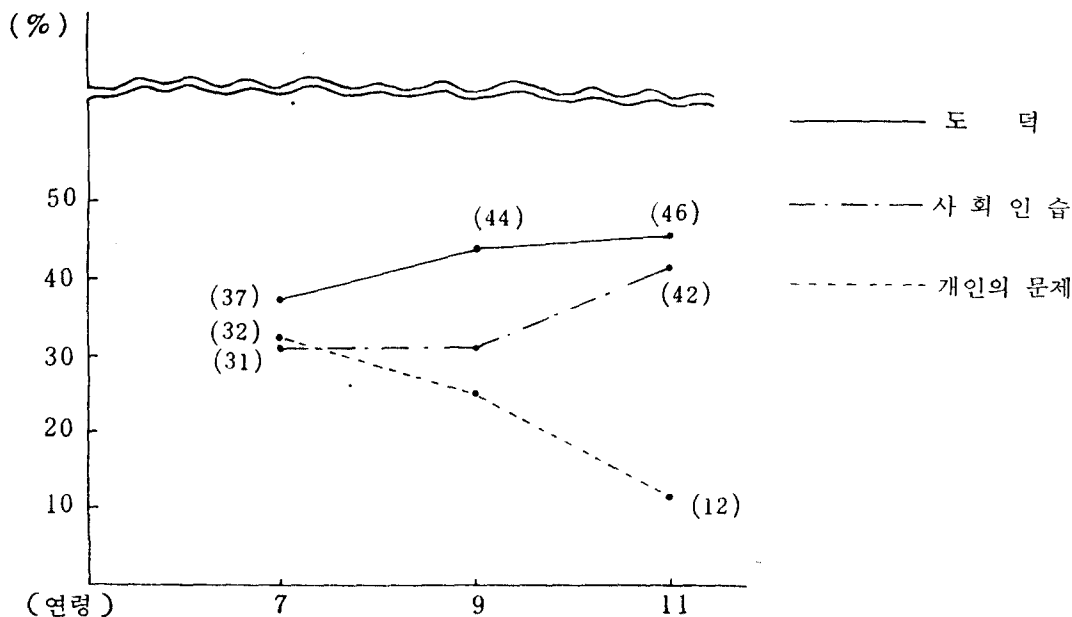
판단개념		규 칙		도 덕				사 회 인 습				개 인 의 문 제			
		연 령		7	9	11	평 균 (%)	7	9	11	평 균 (%)	7	9	11	평 균 (%)
빈도와 백분율															
타 인 의 복 지	N	50	114	47	99	0	0	0	-	1	0	0	0		
	%	98	100	100						2	0	0	0		
사 회 의 통 합	N	0	0	0	-	28	32	31	100	0	0	0	-		
	%					100	100	100							
개 인 의 선 택	N	0	0	0	-	1	0	0	4	7	21	7	96		
	%					13	0	0	87	100	100				
벌 의 당 연	N	2	1	0	5	7	23	8	72	9	5	0	23		
	%	11	3			39	79	100		50	18				
권 위 의 존 재	N	43	24	43	34	36	31	27	27	82	51	17	39		
	%	26	23	52		23	29	29		51	48	19			
권 위 와 갈 등	N	0	0	0	-	17	12	21	89	0	3	3	11		
	%					100	80	87		20	13				
개 인 의 발 달	N	24	21	23	54	10	13	20	33	4	8	4	13		
	%	63	50	49		26	31	43		11	19	9			
계	N	119	160	118	42	100	111	107	35	103	88	31	23		
	%	37	44	46		31	31	42		32	25	12			

* 백분율은 연령별에 따른 것이다.

< 표 6 > 부모권위에 대한 아동의 판단개념에 따른 차이검증

변 량 원	df	χ^2
규 칙	14	275.19 ***
연 령	14	20.13
규 칙 × 연 령	28	58.60 ***

*** P < .001



(그림 2) 부모권위에 대한 전체아동의 판단개념의 규칙의 내용에 따른 연령별 차이

(그림 2)에 의하면 도덕내용에서는 연령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사회인습내용과 개인의 문제에서는 연령간의 차이가 있었다. 사회인습내용에서는 11세만 개념이 많이 나타났으며 개인의 문제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적게 나타났다. <표 5>에 의하면 타인의 복지개념은 도덕내용에서, 사회의 통합개념은 사회인습내용에서, 개인의 선택개념은 개인의 문제에서 거의 나타났다. 별의 당연개념은 사회인습내용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더 많은 아동이 별의 당연개념을 나타냈다. 권위의 존재개념은 사회인습내용에서 연령간의 차이가 거의 없으나, 도덕내용에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더 많이 사용한다. 반면 개인의 문제에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더

적게 사용하였다. 권위와 갈등개념은 거의 사회인습내용에서 나타났으며 개인의 발달개념은 도덕내용에서 제일 많은 54%가 나타났고 사회인습내용은 33%, 개인의 문제에서는 13%로 적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부모권위의 정당성 및 복종에 대한 아동의 평가는 도덕내용과 사회인습내용에 관한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정당하고 복종해야 한다고 평가하였으며 개인의 문제에 관한 부모의 권위는 아동의 연령이 많을수록 더 정당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부모의 권위와 자신의 잠재된 욕망과의 갈등상황에서 아동들은 개인의 문제에 가장 많이 갈등을 나타냈고 연령이 많을수록 더 갈등

을 나타냈다. 반면 사회인습내용에서는 연령이 적은 7세아동이 가장 많이 갈등을 나타냈으며 도덕내용에서는 거의 갈등이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의 권위에 대한 아동의 판단개념은 도덕내용에서 타인의 복지, 권위의 존재, 개인의 발달등의 개념이 많이 나타났으며 사회인습내용에서 사회의 통합, 벌의 당연, 권위와 갈등등의 개념이 많이 나타났으며 개인의 문제에서 개인의 선택, 권위의 존재개념이 많이 나타났나.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부모권위의 정당성 및 복종에 대한 아동들의 평가와 판단개념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본 연구에서 중요한 발견은 부모권위의 정당성과 복종에 대한 평가는 부모가 아동의 행동을 구속하기 위하여 만든 규칙의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모든 대상의 아동들은 부모에게 아동의 행동을 금지하는 도덕과 사회인습의 규칙을 만들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개인의 문제에 관한 규칙에 대해 부모가 아동의 행동을 금지시킬 수 없는 영역이라고 평가하였다. 아동의 연령이 많아질 수록 더 많은 아동들이 개인의 문제에 관한 규칙을 만들 권리는 부모에게 없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Nucci (1981)

Smetana (1981, 198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부모가 정당하지 않다고 한 아동들 중 7세는 10%, 9세는 13%, 11세는 3%의 아동이 복종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7세와 9세의 아동들은 권위의 명령이 부당하더라도 부모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11세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Piaget (1965)의 견해와 일치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아동들의 부모권위에 대한 평가는 9세와 11세사이에 전환기를 형성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아동의 잠재된 욕망과 부모권위사이의 갈등상황에서 부모권위에 대한 아동의 평가는 도덕내용에서 거의 갈등을 나타내지 않고 부모의 명령에 복종한다고 하였으며 사회인습에서는 갈등을 나타내어 자신의 잠재된 욕망대로 행동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Tisak (1986)의 연구에서 흠치는 행동금지규칙에 대해 처음 권위에 종중한다고 한 판단을 변경시키지 않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와 유사한 결과는 Tisak & Ford (1983), Tisak & Turiel (1984)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이들의 연구에서 아동들은 다른 내용을 포함하는 규칙보다 타인의 행복에 속하는 규칙에 대해 갈등을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부모권위에 대한 아동의 판단개념을 통해 아동들이 부모권위에 대해 평가한 타당성을 알 수 있었다. 도덕에 관한 규칙위반은 타인의 행복을 빼앗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사회인습에 관한 개념은 도덕보다 더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차이가 있었다. 도덕내용에서는 권위의 존재, 타인의 복지, 개인의 발

달등의 개념이 나타났고 사회인습내용에서는 사회의 통합, 별의 당연, 권위의 존재, 권위와 갈등, 개인의 발달등의 개념이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판단개념은 규칙이 실제에서 작용하는 기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Mach & Schweder(1978), Nucci(1977), Tisak(1986)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개인의 문제는 많은 아동들이 부모의 지배에 구속받지 않는 행동으로 평가하였으며 부모에게 규칙을 만들 권리가 있다고 평가한 아동이라도 개념에서 개인의 선택에 속하는 문제라고 하였다. 이는 일차적으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친구선택의 행동이 부모권한 밖의 영역으로 평가된 Nucci(198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는 개방형의 질문을 사용하여 아동의 반응을 분석하였으므로 아동의 이해와 표현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제한점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첫째, 우리나라 아동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권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연구함으로써 부모-자녀관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둘째, 부모권위의 정당성과 복종의 측면을 고려하여 아동들의 부모권위에 대한 개념이 규칙의 내용이 지닌 정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권위에 대한 개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아동의 사회행동에 관심있는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분야의 관련연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자극제가 된다.

보다 나은 추후연구를 위해 몇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칙의 내용에 따라 부모권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다르다는 결론을 토대로 더 복잡하고 다양한 규칙으로 범위를 넓혀서 그 차이를 규명해야 한다.

둘째, 권위에 대한 개념이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따라 변화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령대상을 종단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권위관계의 전반적인 발달 및 개인차를 규명해야 한다.

셋째, 권위관계는 부모-자녀의 관계와 아동-아동의 동등한 권력관계로 나뉘므로 아동기와 청년기동안 또래는 권위의 강요자 참여자로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해야 한다.

2. 결 론

본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에 따라 얻어진 결과를 요약함으로써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권위에 대한 아동의 평가는 부모가 정한 규칙의 내용에 따라 부모권위의 정당성과 복종에 차이가 있었다. 도덕규칙과 사회인습규칙에서 부모의 권위를 정당하고 복종하여야 한다고 평가한 반면 개인의 문제에서는 40%이상의 아동들이 정당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부모권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아동이라도 복종의 의무는 있다고 평가하였다.

2) 부모권위와 자신의 잠재된 욕망이 부딪혔을때 도덕내용에서는 규칙에 따라 행동하나 개인의 문제에서는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여 갈등을 나타냈다.

3) 부모의 권위에 대한 아동의 판단개념은 규칙의 내용에 따라 위반한 행동결과에 관심을 갖고 판단하였다. 타인의 복지개념은 도덕규칙에서만 나타났고 사회의 통합개념은 사회인습의 규칙에서만 나타났고, 개인의 선택개념은 개인의 문제에 관한 규칙에서만 나타났다. 특히, 개인의 문제에 관한 규칙은 개인의 특권에 속하며 부모권 한 밖의 영역이라고 판단하였다.

참 고 문 헌

김 이연 역(1964). White, E.G. 직은 섹 자니 지도법. 시조사.

村田孝次(1968). 兒童心理學. 朝倉生活科學

Damon, W.(1977). The social world of the child. San Francisco : Jossey-Bass.

Furth, H.G.(1978). Children's societal understanding and the process of equilibration. New De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No.1. 101-123. Jessey-Bass .

Grizzle, J.E., Starmer, C.F., & Koch, G.G(1969). Analysis of categorical data by linear models, Biametrics, 25, 489-504.

Hartup, W.W.(1978). Children and their friends. In H. McGurk. (Ed.)

Issues in childhood social development. London : Methuem. 130-170.

Nucci, L.(1981). Conceptions of personal issues a domain distinct from moral or societal concepts. Child Development. 52. 114-121.

Smetana, J.G.(1985). Preschool children's conceptions of transgressions ; Effects of Varying Moral and Conventional domain-related attribute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8-29.

Tisak, M.S., & Ford, M.E.(1983). Children's conceptions of moral and prosocial events : Further distinctions in social-cogmitire development.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Detroit.

Tisak, M.S.(1986). Children's conceptions of parental authority.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No1. 45-74. Jossey-Bass .

Turiel, E.(1983). The development of social knowledge ; Monality and convention.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Weston, D., & Turiel, E.(1980). Act-

rule relations: Children's concepts of social rules. *Developmental Psychology*, 16, 417-424.

Youniss, J. (1978). The nature of social development: A conceptual discus-

sion of Cognition, In H. McGurk (Ed.), *Issues in Childhood Social Development*. 203-227. London: Methuen.